

음악회서 인권강의까지... 복합문화공간 밤마다 북적

광주 도심 저수지의 대변신

건강 단련장·힐링명소 탈바꿈
하루 평균 지역 주민 1만명 찾아
행사 기획·관리도 주민들 주도

도심 저수지가 변신하고 있다. 아침 저녁으로 산책하러 나가거나 조깅하는 공간이었던 도심 저수지는 이제 건강 단련의 장소에 머무르지 않고 진화하고 있다.

도심 속 호수공원으로 새롭게 태어난 도심 저수지에서는 낭만적인 콘서트와 열리고 비보이 공연 등 젊은이들의 장기자랑도 수시로 펼쳐진다. 풍물패 공연과 클래식 공연은 물론 '인권강의'도 이젠 도심 저수지에서 만날 수 있다.

◇문화 공연 마당=서구 풍암호수공원에서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저녁 열린 음악회가 열린다. 호수공원 야외 공연장에서는 오후 7시부터 1시간 가량 빠른 템포의 댄스 음악에 맞춰 춤을 추거나 7080 가요를 들으며 감상에 젖을 수도 있다.

장소를 조금 옮겨보자. 광산구 쌍암호수공원으로 가면 27일엔 우리가락 공연이 잡혀있고, 28일은 포크송 콘서트가 예정돼 있다.

10월의 가을밤엔 시낭송과 플루트 연주, 재즈 공연, 근악대가 연주하는 관현악 공연도 열린다. 여기 에다 인권 문화의 밤까지 마련돼 산책 겸 인권 교육까지 결합할 수 있다. 과거 도시민의 쉼터에 머물렀던 도심 저수지가 지금은 문화·예술·인문 공연의 장소로 변신 중인 것이다.

◇건강 공간=도심 저수지가 변신하고 있지만 그래도 공원의 기본 역할은 주민 건강 단련장이자 쉼터 역할이다.

한때 각종 쓰레기가 방치돼 외면을 받았던 도심 저수지는 이제 호수 주변을 따라 걸을 수 있는 도보 코스까지 들어서면서 아침 저녁으로 주민들이 넘쳐난다. 하루 평균 서구 풍암저수지와 운천저수지, 광산구 쌍암호수공원, 북구 양산제 등 도심 저수지를 찾는 지역 주민들만 1만여 명에 이를 정도다.

한낮에도 모자를 눌러쓰고 조심스레 발걸음을 내



광주시 서구 풍암호수공원 야외 공연장에서 25일 열린음악회가 열리고 있다. 음악회는 10월22일까지 매주 주말과 평일 두차례에 걸쳐 오후 7시부터 1시간 가량 진행된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달아 늘어 볼거리도 더욱 풍성해지고 있다. 서구 풍암호수공원에서 격년제로 열리는 풍암호수 장미축제도 서구청과 지역 주민 주도로 개최된다. 호수공원에 장미꽃이 만발한 5월 봄날 풍암호수장미축제 추진위원회가 개최하는 축제에는 수많은 인파가 몰려드는 등 명품 축제로 자리잡았다.

도심 호수공원의 역할이 커지면서 청소년 잡초 제거 등 공원관리에도 주민 참여가 익숙한 풍경으로 자리 잡았다. '아낌없이 주는 호수'에 대한 고마움의 표현인 것이다. 서구 운천저수지는 언제부터인가 환경미화원이 주위야할 쓰레기를 이용 주민들이 직접 줍는 모습이 자주 목격된다. 주말과 휴일이면 봉사활동 나선 학생들의 모습은 물론 예배를 마친 교회 신도들이 쓰레기를 줍거나 공원 의자나 정자 등을 쓸고 닦는 모습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주인 주도 관리도 '척척'=주민이 이용하는 공간인 만큼 도심 저수지에서 개최되는 다양한 문화공연의 기획부터 청소년 잡초 제거 등 호수공원 관리도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 참여형으로 변신 중이다. 광산구 쌍암 호수공원에서 일요일마다 개최되는 '첨단골 열린 음악회'는 지난 2004년 7월 발족한 첨단골 열린 음악회 준비위원회가 행사 기획부터 운영까지 도맡고 있다. 집행위원 50명을 포함 주민 700여 명의 참여로 만들어진 준비위는 올 한해 클래식 공연, 난타 공연 등 50회에 이르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고 있다.

주민 주도로 기획·운영된 호수공원 문화공연이 해를 거듭할수록 주민 호응이 늘자 정부 예산도 덩

달아 늘어 볼거리도 더욱 풍성해지고 있다.

서구 풍암호수공원에서 격년제로 열리는 풍암호수 장미축제도 서구청과 지역 주민 주도로 개최된다. 호수공원에 장미꽃이 만발한 5월 봄날 풍암호수장미축제 추진위원회가 개최하는 축제에는 수많은 인파가 몰려드는 등 명품 축제로 자리잡았다.

도심 호수공원의 역할이 커지면서 청소년 잡초 제거 등 공원관리에도 주민 참여가 익숙한 풍경으로 자리 잡았다.

'아낌없이 주는 호수'에 대한 고마움의 표현인 것이다. 서구 운천저수지는 언제부터인가 환경미화원이 주위야할 쓰레기를 이용 주민들이 직접 줍는 모습이 자주 목격된다.

주말과 휴일이면 봉사활동 나선 학생들의 모습은 물론 예배를 마친 교회 신도들이 쓰레기를 줍거나 공원 의자나 정자 등을 쓸고 닦는 모습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광주시 서구 관계자는 "도심 속 호수공원이 단순한 휴식공간에서 다양한 문화행사가 열리는 주민 힐링 공간으로 변하면서 주민 방문과 참여가 늘고 있는 추세"라면서 "주민들이 직접 나서 다양한 행사를 기획하고 멋지게 운영하는 만큼 구청에서도 이를 최대한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영호기자 khh@kwangju.co.kr

/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양보다 질...광주시 일자리 7만개 만든다

민선 1만개·공공 6만개 민선 6기 일자리 창출 계획 확정

민선 6기 윤정현 호(號)가 민간 일자리 1만개 등 7만개의 일자리 창출 계획을 확정했다.

광주시는 25일 "민선 6기 일자리창출 정책 목표를 7만개로 정하고 연도별 목표, 추진전략과 수단, 실현방법 등을 고용노동부 지역고용정보 네트워크 전산망에 공시했다"고 밝혔다.

민간분야 1만개, 공공 분야 6만개, 목표 고용률은 60.9%다.

광주시는 시정 최우선 가치를 '자존감 있는 일자리 창출'에 두고 KTX 개통, 아시아문화전당 개관 등을 적극 활용해 일자리 창출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광주공동체 정신 구현 등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구축하는 한편 일자리의 '양'보다는 '질'을 높이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일자리 목표공시제 및 목표관리제, 우수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확대 등을 시행하고, 사회통합위원회 및 노사민정 위원회, 경제계 등 범시민단체와 수시로 소통해 문제점을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찾아 해결한다는 방침

이다.

구체적인 일자리 목표는 민간부문에서 자동차와 전기전자, 그린에너지, 융복합, 문화 콘텐츠, MICE 산업 등 지역 전략·주력산업과 미래 신성장 산업을 연계해 6000개의 신규 일자리를 만들어 낼 계획이다.

또한 국내·외 우수기업 160곳을 유치해 4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내기로 했다.

국가적 예산이 투입되는 공공부문에서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 일자리 창출과 청년 기업, 여성 일자리 창출, 노인 일자리 등에서 6만명을 고용할 계획이다.

시는 이외에도 범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사회통합 위원회를 상시화해 이른바 '광주공동체 정신이 구현된 일자리 모델'을 찾아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 조직 내에 사회통합추진단을 설치했으며, 청소년 일자리 확대를 위한 청년인재유성학과 신설했다.

허익배 광주시 일자리 정책관은 "민선 6기의 최우선 시정 목표를 자존감 있는 일자리 창출로 정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 22개 시·군 4년간 일반직만 3254명 늘어

기능직 사라지고 별정직 줄어...인력구조 개편 인건비 부담 가중

공무원 수가 매년 늘고, 기능직 및 별정직의 일반직 전환으로 인해 전남지역 22개 시·군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25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22개 시·군의 공무원 수는 일반직(1~9급) 1만5489명, 지도직 573명, 연구직 98명, 전문경력관 74명, 별정직 29명, 정무직 22명 등 모두 1만6285명이었다.

공무원 수가 가장 많은 지자체는 여수시로 1633명이었으며, 순천시(1262명), 목포시(1093명), 나주시(903명), 광양시(867명)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군 가운데는 고흥군이 722명으로 가장 많았고, 해남군(705명), 영암군(637명), 화순군(633명), 완도군(624명) 등의 순이었다.

4년 전인 지난 2009년 22개 시·군 공무원 수는 1만5969명으로, 일반직이 1만2235명, 기능직 2672명, 별정직 403명, 지도직 571명, 연구직 66명, 정무직 22명의 구성분포를 보였다.

이 기간동안 일반직 공무원이 무려 3254명이 급

증한 반면, 기능직은 아예 사라졌고, 별정직은 374명 감소하는 등 공무원의 구성비는 크게 달라졌다.

사회복지 분야 228명, 가족방역 분야 23명, 안전조직 분야 21명 등 정부시책에 의한 인력이 순증가하고, 지난해 12월12일 지방공무원 직종개편에 의해 기능직 및 별정직 등이 일반직으로 전환된 결과라는 것이 전남도의 설명이다.

이 같은 22개 시·군의 인력구조 개편이 재정력 약화로 이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전남도 22개 시·군 가운데 완도군, 장흥군, 진도군, 구례군, 곡성군, 함평군, 신안군, 고흥군, 보성군, 해남군, 강진군, 장성군, 영광군, 담양군, 무안군 등 무려 15곳이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15개 군의 경우 4년간 140명의 직원이 늘었고, 특히 인건비가 높은 일반직이 1668명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One-Step, One-Solution 한옥 건축에 관한 모든 것, 설계 시공에서 내부인테리어까지 한옥 건축에 관한 모든 정보와 기술을 총망라한 대한민국 유일의 한옥 건축 박람회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제4회 대한민국 한옥건축박람회

Korean Hanok Housing EXPO 2014

2014. 10. 30(목)~11. 4(화), 6일간
전남 영암군 군서면 상대포로 37_ 목재문화체험장

한옥 건축 수요자와의 직접적인 만남,
『대한민국 한옥건축박람회』가
그 기회를 제공해 드립니다.

■ 모집 대상 : 한옥 건축 관련 기업체
- [건축자재관] 한옥 설계·시공, 유지보수, 공구 및 관련기기, 급수·위생계, 외장재, 난방·환기설비재, 도장·방수재, 조명·공공기설재, 조명·전기설비재, 구조재, 단열재, 친환경건축자재
- [인테리어관] 가구·홈인테리어, 욕실 및 주방분야, 홈시큐리티, 인테리어 자재, 주택정보, 창조재, 스마트홈, 홈네트워크, 생활가전 및 디지털 홈, 주방가전분야, 조명, 리빙디자인·DIY

■ 모집 기간
- 1차 마감: 2014년 9월 30일
- 2차 마감: 2014년 10월 15일

■ 한옥하우징마켓 부스규격 및 출품료(총 100부스)
- 건축자재관(총50부스): 회랑 3m X 3m X 3.25m
기본부스 제공 내역: 간판(현수막), 인포데스크 세트, 원탁세트, 스포트라이트 5개(20W), 콘센트 1개(220V), 전기 1Kw
- 인테리어관(총50부스): 옥타형부스 3m X 3m
기본부스 제공 내역: 내벽재, 테이블 세트, 원탁세트, 조명 및 전기, 현수막 등
- 임대 가격: 50만원/부스(부가세 별도), 업체 당 1개 부스이상 신청 가능
*** 독립부스: 출품료 없음(참가업체가 직접 시공하며 전기시설 등 부대시설 이용 시 별도의 신청기준에 따른 비용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참가 특전
- 한옥 예비 건축주와의 실질적인 상담 기회 제공
: (서울은퇴자조합) 및 <서울 거주 광주·전남 출향민>, <나주혁신도시입주기업> 소속의 한옥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장년층 남녀 300명 (행사 기간 중 전시관 관람 확정)
- 전시 참가 기업 중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주제전시관 샘플하우스 내 시공을 통한 홍보 기회 제공 (상세한 내용은 문의처로 문의바랍니다.)

■ 문의 처 (062) 523-0333 / 홈페이지 www.hanokexpo.or.kr

주최 전남도, 영암군 주관 한옥건축박람회추진위원회
후원 교육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산림청,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전라남도교육청, 광주광역시교육청, 조선대학교, 목포대학교, 순천대학교, 광주대학교, 전남도립대학교, 한국건축역사학회, 한국주거학회, 한국농촌건축학회, 한국건축가협회, (사)대한건축학회, 광주전남디자인협회, 한국관광공사, 영암문화원, 광주MBC, 한옥문화원, (사)국제온돌학회